

일본 기술연수 결과보고서



이 임 삼
일본연수단장, 전남서부지부장

- ◆ 연수일시 : 2002. 6. 30~ 7. 4(4박 5일)
- ◆ 연 수 지 : 일본 오사카 지방
- ◆ 인 원 : 한국조경수협회 이임삼 이사
등 29명

I. 연수목적

일본 선진조경수 생산과 조경시설을 돌아보고, 조경수 생산기술과 유통산업의 정보습득을 통하여 우리 조경사업의 육성과 양 국가간 조경인의 협력 강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저 하는데 연수목적이 있었다.

II. 연수개요

춘기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여유가 생겨 해외나들이나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산림

청지원을 받아 일본 연수를 다녀오게 되어서 산림청에 감사를 드리며, 일본 및 우리협회 임직원들의 행사 준비 및 안내에 고생하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연수단장을 맡게되어 혼자만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모든 연수단이 건강하고 보람된 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항상 긴장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털어놓는다.

출발당일 아침 광주를 떠나 김포에서 새로 준공 개항된 인천 영종도 신공항까지 가는 진입도로는 쾌적하여 동북아 최고의 중심공항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에 손색없어 보였고, 최신 설비의 위용을 자랑하는 공항청사와 주변 조경용으로 식재된 수목 및 시설물은 짧은 시간 둘러보았지만 잘 정돈된 느낌이었다.

특히, 우리 나라 고유수종과 선진기술을 융화 접목하여 푸르고 아름답게 국제공항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녹색화 되어가는 조경수목을 보는 마음은 매양 흡족하면서 우리의 조경기술도 세계화에 도달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멀고도 가까운 일본의 조경현장을 보



기 위해 대한항공에 몸을 실었다.

이번 연수 예정지역은 일본 4개 열도 중 본토에 위치한 오사카 지역 인근 조경수목 생산농장 枇山町植木組合과 津田盆栽園(野洲野), 전통정원인 寶

山園, 植物總流通團地인 國華園(株式會社), 金閣寺, 東大寺, 大阪城, 阿智山과 인근에 있는 일본의 최고 폭포인 나치폭포 등을 방문 또는 시찰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일본문화와 삶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보람된 연수가 되고자 하였다.

III. 연수내용

◎ 6月 30日(첫째날)

인천 국제공항을 14시 이륙하여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에 16시경에 도착. 입국수속을 마치고 우리 연수단 일행은 대형버스에 승차하여 오사카 시내 조경시설과 향만, 도로, 건물 등 일본생활상과 경계 활동면을 처음 보고 느끼는 날이었다.

이날은 일요일이라 교통체증도 없었기에 시내 관광하는데 부담없이 가로수와 공원 조성지를 보면서 첫 숙박지인 시라하마로 방향을 돌려야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조경 관계이므로 시내를 돌면서 조경시설과 조경단지를 살펴보니, 일정한 거리 간격을 두고 조경휴식공간을 조성하였고, 가로수도 잘 정리되어 있었다. 공원에는 나무와 지피식물이 잘 정돈되어 있고, 편의시설, 화장실 등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어있어 다정한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가로수는 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로써 수형은 직립성으로 되어 있었고, 정원수 중 가이즈까향나무 전정을 바깥부분 새순만 잘라 구름형으로 재배, 식재한 것이 좋아 보였다.

가로수와 정원수는 유달리 여름인지 몰라도 무성했고, 아마도 이국땅이니 좋게 보였는지 몰라도 아름다웠으나, 일본은 현재 장마철이고, 해양성기후 관계로 느티나무, 향나무 등 자체 고유수종을 오래 전에 식재하였기에 무성하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본토 최남단인 시라하마로 방향을 향하여 가는 도로는 그리 넓

지도 않고, 도로주변도, 가로수도 우리 나라와 비슷하여 한국과 일본은 이제 대등한 자연환경 즉, 조경 관계가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주변을 보니 벼농사, 매실재배, 토마토 등 온실재배, 밀감나무 재배 단지 등이 우리농촌과 같이 아름답게 조성, 전열되어 있는 것을 유리창 너머로 보면서 사색에 잠기기도 했다.

또한 그곳은 해변가로 도로가 대외로 노출되지 않게 되어있었으며, 녹화 환경과 바다 해면을 보는 것은 우리 나라 남해를 보는 것과 같았으며, 거리에 나 들에서 걷고,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니 농촌이면서 어촌이라는 생각을 했다.

항구와 해안에는 작은 배가 정박되어 있었고, 바다물결은 잔잔해 고요한 정박을 이루고 있었고, 저 멀리 바다끝을 향하면 이국땅인 미국 하와이에 도달한다고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었다.

산림은 무성한 상태이나, 조림된 지역은 삼나무, 편백이고 그외는 원시림으로 되어있었으나, 옛날 누군가 말한것과는 달리 마을 주변은 원시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았으며, 조림지는 간벌을 해준 임지가 간혹 보였으나, 대부분은 원시림 상태로 되어있어 이 지역은 산림경영지가 아니고 조경수 생산 및 농작물 주산지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우리 일행은 숙박지인 白浜温泉 지역에 있는 CHISAN HOTEL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모두 목욕을 하고 프론트에 모여 호텔주변 조경 시설을 돌아보고 6시경 만찬을 가졌다. 만찬은 일본 정통식으로 1인 1식으로 되어 있었고, 전 회원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좌석으로 배치되어있어 식사하기전 각자 소개 후, 한국 소주로 "위하여"를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그날은 WORLDCUP 결승전을 하는 날이기에 자기방 또

는 홀에서 경기를 보았는데 결과는 2:0으로 브라질이 우승하는 것을 보고 우리 나라가 우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자기 방으로 가 그 날의 일과를 마쳤다.

◎ 7月 1日(둘째날)



아침 8시 버스에 탑승하여 조경수 생산농장과 조합원 공동판매장인 桃山町植木組合과 조합원 농장을 방문하였다.

본 조합은 114명으로 설립되어 있었으며, 생산된 조경수 판매와 알선 원자재 공동구입 등을 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다면서 소장(杉本直一)을 비롯한 조합사무원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다. 조합은 공공녹화, 일반공원녹화, 토지개발, 옥상녹화, 원예판매, 품질향상과 후계자 육성,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무실과 직매장 및 자재창고 및 전시장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으며, 지금은 비 수요기라 회원들이 맡긴 조경수를 소규모 판매하고, 수요처에 송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인근 오사카, 교토 등 수요처에서 요구하면 택배로 공급하여주고, 물량이 많으면 오사카 “국화원”공판장으로도 공급해 주고 있다고 한다.

전시되어 있는 수종은 가이즈까, 홍가시, 선주목, 팡팡나무, 나한송, 녹나구 등으로 모두 컨테이너 재배를 하여 이동시킨 것이었다.

일본은 해양성기후에 연중 습도가 많아 6개월 이상 노지에 두어도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수목의 형태는 직립성이며, 수폭이 좁은 경향이고, 수고는 2.0m, 수폭은 0.3정도로 보였다.

조합은 조경수판매, 자재구입비의 10~20% 수수료를 받아 조합비와 함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합원들의 수익이 적어 조합운영도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하였다.

소장과의 1시간 이상 대화와 운영·판매 등 전반적인 사항을 듣고, 논의하고, 앞으로의 협력증진 방안 등, 많은 논의를 한 후, 현장 방문전에 준비한 차와 과자등을 먹으면서 조그마한 선물을 전해주었다.

현장 농장들을 찾아보니 10천평~5만평 규모로 몇 군데 나뉘어 있었으며, 수종별 규격별로 잘 식재되어 있었다.

금년에 식재한 것은 철사줄과 말뚝으로 밖아 3~5m 간격으로 심어져있었고, 흔들리지 않게 줄에 매어놓았다. 그런데 인부임과 우량조경수 생산을 위해서 처음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었으며, 잡초, 퇴비, 병해충 방제는 우리가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큰 나무는 군데군데 이식하여 일정한 부분을 절취, 생육중이며, 대경목은 수요처에서 사전 주문하면 뿌리돌림을 해 두었다가 식재년도에 이식하고, 모든 작업은 기계화에 의하고 있었으며, 생산과 구매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일부 보조와 저렴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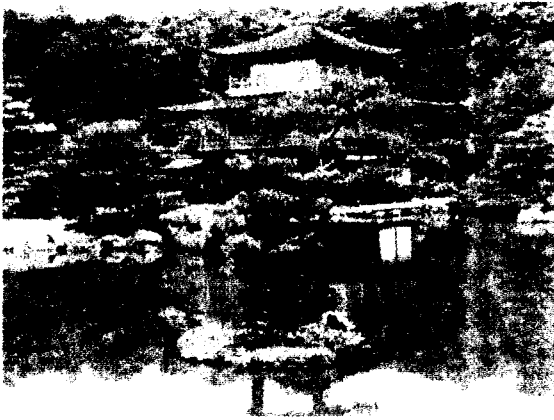
특히, 일본은 일찍부터 POT재배를 하고 있었으며, 주문재배 및 사전 계약재배 등으로 가격이 보장되어



있어, 고가에다 안정적인 재배가 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한편, 수요자는 자기가 바라는 수목의 모양과 크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주문하고, 생산자는 POT 등 재배 등으로 이동과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식재 후 고사되는 비율을 최소화시키는데 사업경영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또한, 신품종 재배와 새로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토질계량에 있어서도 피트모스, 야끼즈나(부엽토)를 사용해서 자체적인 신품종과 기술 개발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고 하였다. 조합원 20여 명의 농장주가 서로 협력하여 경영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 나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최근 몇 년간 불황을 이기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한다고 하면서, 그 중 한사람은 몇 대째 가업으로 조경업을 하여 자기까지는 가업을 이었으나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대에서 더 이상 후대에게 물려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서글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자식들은 어려운 그 사업을 떠맡지 않겠다고 하니, 자신도 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자식들대까지 넘겨주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한분은 어려운 현실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움을 딛고 힘껏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하여 우리 일행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찾기도 했지만, 가업을 잇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의 말은 가슴 한구석에 잔영처럼 남아 있었으나, 새로운 품종 및 기술개발과 특히 옥상녹화와 기관, 회사, 공연장, 사무실에 조경수 임대 등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포부를 불어넣어 주어 다시 희망을 안고 그곳을 떠났다.

농장의 견학을 마치고 금각사로 향했다. 입구를 들어서자 일개장군의 별장을 호화로운 금장식으로 꾸몄다는 가이드의 말보다는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표면에 붙인 얇은 금박으로 건축물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빛나보였다.

절을 둘러싸고 있는 "경안지"라는 연못도 건축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일익을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둘러 쌓여있는 잘 다듬어진 조경수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흥미롭게해 주었으며, 배모양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는 가관이었으며, 절 전체 지역을 역사적 보호특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일본학생들이 많이 수학여행을 하고 있어 민족 및 국가발전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나가 하는 의문을 품고, 우리는 점심식사를 위해 고기부페집으로 향하였고, 오후에는 아지산 조경시설과 나치폭포를 보기로 하였다.

식사를 마음껏 맛있게 먹고, 우리는 다시 아지산 조경 조성단지와 나치폭포 주변의 조경시설을 보기 위해 VIP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지산은 경치도 아름답고 마을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도 쉬워 주변공원 및 도로의 조경수 식재와 지피식물의 조화있게 조성된 조경시설은 조경의 극치를 보는 느낌이 들었으며, 우리 연수단은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배우면서 많은 사진도 촬영했다.

바로 인근에 있는 나치폭포가 멀리서 보여, 나무와 숲 사이에 비치는 폭포는 호화찬란했고, 장마철이라 떨어지는 물이 많아 133m 위에서 부딪치는 빛깔은 더욱 황홀했었다.

떨어지는 지면을 보기위해 산길 오솔길을 따라 가보니 포장은 안되어 있었으나,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로 걸어가게 만들어져 있었다.

주변에 서 있는 삼나무, 편백은 수 백년된 고목으로서 한 나무의 둘레가 세아름 이상이었고, 온갖 산천이 이런 나무로 뽁뽁히 들어서 있었다. 우리는 이곳을 지나면서 피로의 몸을 자연에 맡겼 말기면서 폭포에 이르렀는데, 자연적인 지형과 오래된 나무, 인공으로 조성된 조경시설 모두가 어울리는 한 폭의 산수화 같았다.

이날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숙박지인 호라시마(浦烏)호텔로 향하였다. 이 호텔은 조그마한 섬의 유일한 온천호텔로 가을과 겨울에는 방 예약을 하는데 어려운 곳이라고 하였다.

와카야마에 있는 것으로 호텔은 여객선을 타고 10여분 가는 외딴섬인데 섬과 바다, 하늘이 함께 어울리는 독립된 지역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 관광지로 개발한 지역이었다.

여장을 풀고 주변 조경시설을 돌아보고 나서 호텔 이용안내를 받았는데 이곳은 3개 호텔건물과 6개 온천장이 있는데, 온천장을 다녀오던 선물을 준다고 하여 4개 지역은 이날 다녔고, 2개 지역은 내일아침에 다니기로 하였다. 피로를 풀고 7시경 저녁식사를 했는데 일본 정식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별도로 부족한 분은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호텔에서 환영 준비한 한국소주와 우리 나라 노래 시간을 가졌는데, 부부가 온 가족이 더 좋아했고, 여자들이 흥미를 돌구었으며, 시골에서 온 가족이 더 잘놀고 노래도 너무 잘해 도시와 시골이 이제는 삶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본인도 가족과 같이 오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다.

저녁 8시 30분까지 놀다가 중국무술을 9시까지 보고, 내일을 위해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전부 흡족해 했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아침 5시 20분에 기상, 산위에 있는 온천장에 올라가 해돋이를 보면서 노천온천을 한 후, 6개 온천장을 돌아 도장을 찍어 프론트에 보여주니 호텔선전 엽서 3장과 유황냄새가나는 가루 1봉을 주면서 선물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고 호텔의 경영방식이, 좋은것을 다 보게 하여 다시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본인만의 생각이요 앞으로 여행을 가시면 한번 들려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 7月 2日(셋째날)

아침 8시경 다시 버스를 타고 분재원과 도로 도시주변 조경단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조경수와 분재는 유사한 사업이고 또한, 일본 분재기술은 세계적인이므로 그에 실상을 직접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津田盆栽園(野洲郡)은 조그마한 마을 한복판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처음 가는 길이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렸다.

부지 200여평에 일본 고유 목재집에서 수작업 위주의 분재업을 하고 있었으며, 2대째 내려온 집안이었다. 젊은 사장(津田豊隆) 어머니가 경영하고 있었으며,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녹차와 과자를 접대 받았다.

전시되어 있는 분재는 소나무, 느티나무, 녹나무 등 수십종으로 1,000여 분재가 전시되어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소나무 분재는 일화 6천엔(한화

6억원 상당)을 호가한다고 하면서 오사카, 교토 등으로 판매하고, 자체 소재 농장을 갖고 있다면서 야기자기하게 분재기술을 발휘하여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게 분재를 기르고 있었다.

집안에 자기 사무실을 갖고, 인터넷으로 주문 및 판매하고 있었으며, 분재업을 하는데 있어 보람과 긍지를 갖고있다고 하면서 모든 기술은 아버님으로부터 전수 받았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일본의 시골 풍경과 가정집을 볼 수 있었는데, 모든 집들은 목재집이었다. 아마 지진을 대비해서 목재문화가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 회원들은 분재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가지 조형에 감탄을 하면서 앞으로 조경단지 조성시 부분적인 분재기술도 접목하여 조경수와 분재가 공존하는데 기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시 이동하여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해상공원과 도로 주변공원 조성지를 보기위해 출발하였다.

구시모토海中公園내 수족관과海中展望塔을 보고 바다 밑 6.3m 해저의 고기생활과 바다지면의 자연환경을 구경하였다.

해중공원 주변에는 가옥도 많지 않았고, 산 밑에 있어 해양오염은 볼 수 없었으며, 인적과 떨어진 장소였다. 수족관에는 일본 해역에서 살고있는 어족을 전부 옮겨 놓아 마치 바다자연 생활상태를 그대로 보는 느낌이 들었다.

해중 바다속에도 자연생태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여러가지 바다 자연환경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고, 먹이를 주니 인근바다에서 생활하는 많은 고기가 모여들었다.

인근에 있는 공원조성단지는 많은 조경수와 산림수종 지피식물을 식재하였고, 꽃과 휴게시설도 잘 되어있어 바다의 향기와 육지의 조경이 한데 어울려지는 종점이었다.

또한 2km정도 차를타고 도달한 곳은 역시 바닷가로 육지와 바위섬 사이에 바다물이 넘나드는 곳

으로써, 이날은 썰물 시기라 물이 빠져 있었으나, 육지와 바위섬 사이에 돌만이 우뚝서있는 곳이 6군데가 있는데 이름을 바다 돌다리라고 하였다.

지금부터 4천 5백년 또는 4백 5십년 전에는 돌섬과 육지가 이어져있었으나 오랜 세월속에 풍화작용 또는 바다바람과 바닷물에 씻어져 다 떠내려가고 돌만 남아있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이국인들에게 관람장소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 우리 일행은 교토에 있는 자연호수 주변에 조성되어있는 조경단지에 도착하여 자연환경과 분수, 유람선 등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감상하였고, 유람선을 탈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못타고 호수주변에서 저물어가는 호수의 환경을 감상하였다.

호수주변은 40km라 하고, 오사카, 교토, 고베 등 주민들의 상수원이 되고 있다면서 물은 아주 깨끗하다고 하였다.

일본은 호텔에 냉수가 없는 것도 수도물이 깨끗하여 욕실이나 어디든지 수도물을 받아먹을 수 있다고 자랑을 하는 일본인도 있었다.

그곳 호수 주변에서 야경을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한 후, 8시 30분경 우리는 숙소인 라후레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 7월 3일(넷째날)

아침 8시 30분 승차하여 오사카 지방의 유일한 종합유통센터인 國華園을 방문하였다. 우리 일행을 담당부장인 中司雅典씨가 반가이 맞이하면서 國華園 全体를 돌면서 자세히 소개해 주었다.

이곳은 조경수, 지피식물 각종 꽃, 농업식물, 비료, 약품, 장비와 나무로 만든 각종 장식품 등 모든 농, 임산물을 판매하는 종합시장 또는 백화점이었다.

이날은 공판이 없는 날이고, 늦게 도착한 관계로 공판사항은 볼 수 없었으나 공판 후, 잔여물을 전시한 물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우리의 관심사인 조경수와 지피식물도 수백종이 전시되어 있

어 뿌리 포장상태와 판매가격을 볼 수 있었다.

일본 돈과 우리 돈을 같은 액으로 보면 판매가격은 대동소이하였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은 일본 판매액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여 10배 이상 비싸다고 하였는데, 일본은 정상적인 거래와 가격보장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량품 생산과 적정이익이 보장되는 유통체계가 확립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우리는 과잉 생산으로 덤핑판매)에도 하루속히 종합유통센터가 설립되어 거래질서와 적정가격이 보장되는 유통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

요즘에는 1일 4천명이 유통센터를 방문,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있었으며 봄철 절정기에는 1만~1만5천명이 다녀간다고 하였다.

수요자들은 조경수로부터 모든 작물자재 일절을 이곳에서 정찰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속에서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통센터는 판매 수익의 조경수, 분재, 꽃 등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새로운 분야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 일행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나서 각자 농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가득 구입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는데 “國華園”에서 발행한 홍보책자를 30부 기증받았으며, 우리는 우리 생산물 “김” 2봉치를 기증하고 버스에 승차하여 인근에 있는 일본 전통정원인 寶山園을 살펴보았는데 전통일본 목재주택에다 정원에는 자연연못과 냇물이 흐르고, 아기자기한 조경 수종으로 조화있게 식재, 조성되어 있었으며, 좀 멀고 높은 언덕에는 삼나무, 편백으로 식재되어 있었다.

물이 흘러가는 주변에는 지피식물과 잔디, 자연석 등으로 덮여 있었고, 물 정화를 위해 숲을 띠로 만들어 놓았다. 뒷편에는 산책로와 큰 자연석 일본의 전통수종 등이 뽀뽀히 심어져 있었고, 정원밖에는 주차장과 전통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어진 수익을 1천평의 정원관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설명을

들던 중, 흘러가는 물속을 보니 시골 고동이 용기 쫓기 살고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었으며, 모든 주변의 울타리는 조경 수종으로 생울타리로 조성되어 있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는 일본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도규가와 이에야스가 살았던 오사카성을 돌아보고, 주변의 조경수종과 식재관리와 성밖호수, 돌로 쌓은 성축 등을 살펴보았으나, 우리 역사와 좋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동대사”로 향하였다.

절 입구에는 모여있는 많은 사슴무리가 이방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낮은 방문자들의 파자 공세에 정신이 팔려 줄줄 따라다니고 있었다. 절 내부에 들어가보니 본존불이 모셔있는 대웅전은 그 규모가 가히 어마어마하게 큰 것에 보는 이를 놀라게 했다. 불상의 크기에도 놀라웠지만 한편으로 우리 선조의 작품이 일본 절 본당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새삼 뿌듯한 마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주변 조경은 오래되어 큰 나무가 되어있었으며, 관리도 잘 되고 있었다. 특히, 절 입구의 정원에 두 그루 오래된 나무가 건강히 자라기 위하여 사다리 모형의 받침목을 사방에 설치하고 출입을 금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길 양쪽의 잔디밭은 저물어가는 그림자와 어울려져 한 폭의 그림 같이 아름다움이 일품이었다.

연수의 마지막을 오사카에서 보내게 되어 우리 일행은 오사카의 대표적인 변화가라는 “도톰”거리로 향했다. 그곳은 현란한 네온사인과 자유분방한 젊은층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생동감이 넘치는 상업, 경제의 본고장임을 증명하듯이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였다.

상점가를 돌아보고 일본요리의 진수인 초밥부페의 원조집에서 실컷 먹어보기도 하였다. 리카로알 호텔에 돌아와 마지막 밤이라는 아쉬움을 달래면서 단합대회를 겸한 회식도하고 장기자랑도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즐거움 밤을 보냈다.

그간 우리 연수단은 호텔에서 버스에서 현장에

서 서로의 느낀점, 배운점 등을 토의하거나 발전방향을 협의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품종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청장년으로 나누어 우리의 조경산업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유통센터 조성, 조경수 지개선, 우량 조경수 생산과 적정가격유지, 회원간의 유대강화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하였으며, 협회에서의 나름대로 발전 방향을 마련, 이사회 및 총회에서 논의, 심의하기로 하였다. 장기간 여행 중 여유시간이 있으면 자기의 소견과 이야기 등을 하면서 지루한 여행이 되지 않도록 연수단원이 서로 협력해 주었다.

특히, 광주에서 조경수 생산업을 하면서 삼일합동사무소를 책임 운영하고 있는 박은수 회원께서 사회경험담과 법률상식을 자세히 알려주어 단원들에게 호감을 받았으며, 앞으로 경제 및 일상생활을 하는데 모르는 법률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면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여 모두 감사에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단원들은 조경수협회 법률자문 또는 고문으로 추대하라고 하여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 7月 4日(마지막 날)

우리 일행은 아침식사를 하고 그리운 자기집으로 간다는 기쁨, 일본을 떠난다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 선조들의 건축기술이 숨쉬고 있는 “사천왕사”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기로 했다.

“사천왕사”는 고대에 외국사신을 영접하기 위한 영빈관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 건물은 쇼토쿠 태자가 불교 진흥을 목적으로 593년에 세운 절로 남대문, 오층탑, 금당이 시뻘노시 양식이라는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세워져 있었다. 절을 지은 건축가는 그 당시 백제에서 초빙한 목수 유씨(柳氏)로, 백제 군수리 절터의 사찰양식과 똑같다. 금당은 아스카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양식으로 한국인 사찰 건축가 유씨의 절묘한 건축수법이 돋보이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라 하며, 경주 석굴암과 일직선상에 있고 처마에 고양이 기왓상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나라 양양에 있는 “낙산

사”에도 똑같은 고양이 상이 있다고 한다.

주변 조경은 잘 조성되어 있었고, 관리도 양호하나 건물관리는 좀 허술하게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주변 연못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라”가 한가롭게 놀고 있었고, 많은 관람객이 구경을 하고 있었다.

이곳 관광을 끝으로 우리는 버스에 승차하여 우리가 입국한 오사카 공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마치고 13:40시 대한항공에 탑승, 그림던 인천공항에 15:30시 도착하여 짐을 챙긴 후 16:00시에 공항로비에서 해산식을 하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IV. 총괄보고

1. 일본은 지리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경수 소비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경, 오사카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이 따뜻한 곳에 치우쳐 있어 가시나무, 나한송, 홍가시나무 등 남부수종들의 대목생산이 많고 상록수 계통의 조경수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2. 일본의 건물조경 형태는 건축의 일부분으로 건축설계때 조경설계가 같이 이루어져 대목(大木)의 경우, 설계때 농장에 식재된 조경수 계약이 같이 이루어지며 계약된 나무에는 건축주의 팻말을 붙이고 1~2년전에 전정과 뿌리돌림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식후에 활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3. 새로 신축하는 중, 대형 건물 앞에는 소공원을 만들어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을 만들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도 휴식공간을 공유케하는 치밀함이 돋보였다.

4. 생산현장에서는 노동력 절감과 이식 후의 양호한 활착을 위하여 POT재배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으며, 이는 묘목생산에서부터 성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 여건이 비슷한 우리의 생산현장에도 시급히 도입되어야할 중요한

선진 기술이었다.

5. POT재배의 활용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사고를 바꾸고, 우수한 부엽토 생산방법의 연구와 POT재배의 필수사항인 대형지하수 개발이 선결과제 임을 느꼈다. (일본의 생산현장은 POT에 넣는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 각 농장의 비밀사항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6. 일본의 조경수 유통과정은 생산자들이 설립한 조합이나 단체, 개인 유통센터가 주산지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산교육과 유통구조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중간업자에 끌려 다니는 우리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 이러한 부분의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함을 새삼 느끼게 하였으며, 우리 조경 회원들도 힘을 합하여 유통센터를 조성하여야 하겠다.

7. 일본의 조경수 생산현장도 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저하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으며, 활로모색을 위하여 온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직경 30cm 이상의 대목(大木)을 생산하는 농장에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착실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8. 조경수 생산자금의 이율이 연 2~3%에 2~30년 상환인 일본에 비하여 훨씬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우리는 4%대의 생산자금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9. 끝으로 우리와 비슷한 기후풍토 속에 제반여건이 비슷한 선진 일본기술을 연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다양하고 선진화된 대, 중, 소업체를 고루 선정하였으면 하고, 일본의 생산현장에서는 괴롭겠지만 선진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의 많은 조경인과 관계자들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우리도 선진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획기적인 생산과 유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바 있다.

V. 결 론

일본의 오사카지방은 우리나라의 남부지방과 비슷한 온대지방으로 식물분포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아열대 식물인 야자류를 비롯한 선인장까지 천혜의 식물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조경수 생산 또한 관목류부터 아름드리 대목까지 각양각색의 수목이 생산되고 있는 일본 최고의 조경수 생산단지이고, 조경조성지였다.

생산방법도 노동력과 생산비의 절감을 위하여 또 이식 후 활착을 위하여 "POT재배"가 일상화되고 있었다. 조경수 생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의 채산성 또한 악화 일로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바, 조경수 생산의 선진지인 일본 오사카지방을 연수하고 새로운 형태의 생산기술과 노동력절감을 위한 생산방법들을 견학함으로써 우리의 침체된 조경수 생산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응용함으로써 향후 선진기법이 가미된 새로운 형태의 조경수 생산이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기술연수단 일동은 보고, 배우고, 느낀점을 각자 조경수 생산 및 판매등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조경산업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젊고 의욕이 있는 젊은 조경인을 일본 선진국에 연수시켜 기술을 향상,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연수기회를 마련해 주고, 연수비를 지원해 주신 산림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조경인을 비롯한 많은 임업인의 해외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 연수단은 젊고, 처음간 회원들이 대부분이라 선진조경기술의 섭취의욕, 하고자하는 용기가 높았으며, 농산촌에서 조경수 생산에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에게 이런 연수기회를 주신데 대한 고마운 마음 갖음은 이루 해야될 수 없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보고서를 맺는다. **조경수**

일본 연수 대상자 명단

NO	상 호	성 명	비 고
1	한일제2농원	한상득	보 조 및 자부담
2	가림조경	허홍석	
3	회원조경	이건성	
4	남해종합개발	신 훈	
5	계림조경	이형욱	
6	영그린조경	박백영	
7	대화농원	이무송	
8	삼원조경	가 현	
9	새봄농원	권오홍	
10	대강조경	권일병	
11	동강조경	이임삼	
12	남산농장	김용주	
13	경북식물원	조규석	
14	일등농장	한희문	
15	미그린조경	정준호	
16	한빛조경	조완래	
17	청산농원	정승수	
18	탐라조경공사	양승호	
19	송암조경개발	황인준	자부담
20	한일제2농원	윤미리	
21	대강조경	백분순	
22	산가농원	오석주	
23	내덕조경	윤충	
24	광주조경	박은수	
25	가림조경	허비영	
26	한빛조경	장혜영	
27	삼원조경	고은숙	
28	한빛조경	염성용	
29	한국조경수협회	박우석	
	29명	계	